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치위생 전공선택 및 직업의식에 관한 조사

김선영 · 김윤정 · 문상은
광주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

Effect of gender role identity on choice of dental hygiene and professionalism

Seon-Yeong Kim · Yun-Jeng Kim · Sang Eun Mo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wangju Women's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eon-Yeong Kim, Dept. of Dental Hygiene, Kwangju Women's university, 201 Yeodai-gil, Gwangsan-gu, Gwangju, 506-713, Korea, Tel : +82-62-950-3995, Fax : +82-62-950-3840, E-mail : bible750@kwu.ac.kr

Received: 11 March 2015; Revised: 7 April 2015; Accepted: 8 April 2015

ABSTRACT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ender role identity on major choice, and preference and choice of job for applica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Methods: The subjects were 202 high school girl students visiting K university in October, 2014 and in January, 2015 for the interview of early and regular admission to the university.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3 question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40 questions of gender role identity, and 6 questions of career choice factors. Gender role identity included 15 questions of masculinity, 15 questions of femininity, and 10 questions of neutral gender using instrument of Kim by Likert scale. Cronbach's alpha of masculinity, femininity, and neutral gender was 0.810, 0.762, and 0.801 respectivel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χ^2 -test with SPSS Win 12.0.

Results: The effects of gender role identity on major choice and professionalism were as follows. In major choice motivation, psychological type, femininity type and masculinity types selected aptitude, professional sustainability and recommendation by acquaintance in order, but undifferentiated type selected aptitude, recommendation by acquaintance and professional sustainability in order.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5$). In major choice information, psychological, femininity and undifferentiated types prefer indirect experience but masculinity type prefers direct experience.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5$). In job selection, psychological, femininity and undifferentiated types want to do assistant works rather than oral health prevention and education. Masculinity type want to do oral health prevention and education rather than assistant work.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01$).

Conclusions: The gender role identity affected the factors related to choice of major and job in dental hygiene major applica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areer choice program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by personality types and gender role identity types.

Key Words: gender role identity, choice of major, dental hygiene

색인: 성역할정체감, 전공선택

서론

대학은 학문적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 고도의 지식 및 기술을 전달하여 학습하게 하고 이를 자신의 삶의 업으로 연결하여 개인의 성취감과 자아실현을 돕는 최고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 직업을 선택하는 진로의 방향은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고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현실, 변화하는 입시제도, 인구학적인 변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으로 인하여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에 대한 해법을 교육기관이나 전공분야별 직업군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적성에 대한 파악은 다양한 적성도 검사나 성격검사 혹은 심리검사를 통하여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을 가늠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김¹⁾의 연구에서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적성평가의 내용과 과정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자신의 적성을 개인적 선호도, 심리적 만족도 혹은 자신의 성향이나 취향으로 가늠하고 선택을 했다가 전공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저학년에 진로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진로에 대한 방향을 미처 바꾸지 못하고 자기주도적인 진로선택의 결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다가 결국 졸업을 하여 취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이직을 하는 사례도 확인 할 수 있다. 적성에 따른 진로선택의 어려움은 해마다 전국 82개 대학(27개 4년제, 55개 3년제)²⁾에서 5천여 명의 치과위생사를 배출하고 있는 치위생학과 교육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양 등³⁾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에 따른 전공-흥미 일치도가 상이함으로 진로지도 시 유형에 따른 차이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배와 김⁴⁾의 연구에서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회로 진출하기 이전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중도 포기자율을 낮출 수 있는 학생지도 및 진로상담지도, 높은 직무 만족도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선호업무의 파악 및 교육과 취업지도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선호업무 및 전공 선택의 방향성을 통하여 학생개인의 이해도를 높이며 교육기관과 학생이 수용할 수 있고, 임상기관에서는 높은 직무만족도와 낮은 이직률을 정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성역할정체감(gender role identity)이란 이⁵⁾의 연구에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인 성격특성, 또는 여성적인 성격특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하는 정도를 말한다 하였다. 성역할정체감은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의 이분법적인 분류가 아니라 남성성 유형, 여성성 유형,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향이 우위에 양립하는 양성성 유형, 남성성과 여성성이 미 확립되어 있는 미분화 유형으로 4분류하여 이를 다양한 사회화적인 요인과 결합하여 개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진로에 관한 연구가 다수 선행되어 있으며⁶⁻⁹⁾, 이를 박¹⁰⁾의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의 성역할정체감과 그 유형의 다양성에 활용하고, 김 등¹¹⁾의 연구에서는 남자간호사의 이직률연구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 치위생학과 학생이나 치과위생사의 이해를 위한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선호업무, 취업요인 중 우선으로 생각하는 고려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치위생학과를 선호하는 학생 및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치과위생사 직업군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형별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방향을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에 수시와 정시모집에 면접을 위해 K대학교 치위생학과에 방문한 면접생 300여명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중 동의를 얻은 239명의 대상자에게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인 37부의 설문을 제외한 후 최종 202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문항은 일반적인 특성 3문항, 성역할정체감 설문 40문항, 직업선택 및 취업요인에 관련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1. 성역할정체감 측정도구

15문항의 남성성 변인, 15문항의 여성성 변인, 10문항의 중성성 변인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진 김¹²⁾의 도구를 사용하였고,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여 중앙치분리법(Median Spilt Procedure)을 적용하였다. 남성성 문항의 Cronbach's alpha값은 0.810, 여성성 문항의 Cronbach's alpha값은 0.762, 중성성 문항의 Cronbach's alpha값은 0.801로 나타났다.

2.2. 용어의 정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4분류의 정의는 Bem과 Spence의 연구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1) 남성성 정체감(Masculinity type)은 남성성 변인에 해당하는 점수가 높고 여성변인의 점수가 낮다. 남성 변인은 남성다움으로 적극적, 지배적, 독립적, 성취욕구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져있다.
- 2) 여성성 정체감(Feminity type)은 여성성 변인에 해당하는 점수가 높고 남성 변인의 점수는 낮은 경우이다. 여성 변인은 여성다움으로 순종적, 의존적, 애교심, 질투심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져있다.
- 3) 미분화 정체감(Undifferentiated type)은 남성적 혹은 여성적 특성 중 어느 한쪽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로

남성변인과 여성변인의 점수가 모두 낮다.

- 4) 양성성 정체감(Psychological type)은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경우로 이들 특성이 균형을 이룬 상태다.

3. 자료분석

조사된 202개의 설문조사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전체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분포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선택 동기와 정보, 선호업무, 취업고려요인에 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χ^2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성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인문계(91.1%), 실업계(6.4%), 특수목적고(2.5%), 주 성장지에서 중소도시(55.4%), 군(읍, 면)(31.2%), 대도시(12.9%), 해외(0.5%)로 나타났다<Table 1>.

2. 전체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분포

성역할정체감의 유형별 분포는 중앙치를 기준으로 남성변인의 점수는 높고, 여성변인의 점수가 낮은 양성성 정체감, 여성변인의 점수가 높고 남성변인의 점수가 낮은 여성성 정체감, 여성과 남성 변인 모두가 높은 양성성 정체감,

여성과 남성 변인 모두가 낮은 미분화 정체감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의 유형별 분포는 양성성(26.7%), 여성성(26.7%), 미분화(25.2%), 남성성(21.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3.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와 정보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에서 양성성은 적성(64.8%), 직업적 안정성(29.6%), 지인의 추천(5.6%) 순으로, 여성성은 적성(57.4%), 직업적 안정성(25.9%), 지인의 추천(16.7%) 순으로, 남성성은 적성(65.1%), 직업적 안정성(27.9%), 지인의 추천(7.0%) 순으로 동일한 순이었으나 미분화는 적성(58.8%), 지인의 추천(27.5%), 직업적인 안정성(13.7%)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정보에서 양성성은 간접경험(57.4%), 직접경험(42.6%) 순으로, 여성성은 간접경험(51.9%), 직접경험(48.1%) 순으로, 미분화는 간접경험(62.7%), 직접경험(37.3%)순으로 직접경험보다는 간접경험을 선호하였으나 남성성은 간접경험(34.9%) 보다는 직접경험(65.1%)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Table 3>.

4.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선호업무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선호업무에서 양성성은 진료협조(61.1%), 예방 및 교육(38.9%) 순으로, 여성성은 진료협조(51.9%), 예방 및 교육(48.1%) 순으로, 미분화는 진료협조(64.7%), 예방 및 교육(35.3%) 순으로 양성성, 여성성, 미분화 모두 진료협조업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2)

Category		N	%
High school	Academic	184	91.1
	Industrial	13	6.4
	Special education	5	2.5
Main growth index	Prevalence	63	31.2
	Micropolitan	112	55.4
	Metropolis	26	12.9
	Abroad	1	0.5

Table 2. Gender–role department

(N=202)

Gender-role department	Standard	Total
Psychological type	Feminity factor >Mdn and masculinity factor >Mdn	54(26.7)
Feminity type	Feminity factor >Mdn and masculinity factor <=Mdn	54(26.7)
Masculinity type	Feminity factor <=Mdn and masculinity factor >Mdn	43(21.3)
Undifferentiated type	Feminity factor <=Mdn and masculinity factor <=Mdn	51(25.2)

Table 3. Motivation and information for Major choice by gender-role identity

(N=202)

		Gender-role identity				p-value*
		Psychological type	Feminity type	Masculinity type	Undifferentiated type	
Motivation	Aptitude	35(64.8)	31(57.4)	28(65.1)	30(58.8)	0.024
	Recommendation from acquaintance	3(5.6)	9(16.7)	3(7.0)	14(27.5)	
	Professional sustainability	16(29.6)	14(25.9)	12(27.9)	7(13.7)	
Total		54(100)	54(100)	43(100)	51(100)	
Information	Direct experience	23(42.6)	26(48.1)	28(65.1)	19(37.3)	0.045
	Indirect experience	31(57.4)	28(51.9)	15(34.9)	32(62.7)	
	Total	54(100.0)	54(100.0)	43(100.0)	51(100.0)	

*by chi-square test

Table 4. Preference part by gender-role identity

(N=202)

Preference field	Gender-role identity				p-value*
	Psychological type	Feminity type	Masculinity type	Undifferentiated type	
Prevention and education	21(38.9)	26(48.1)	33(76.7)	18(35.3)	<0.001
Assistance for treatment	33(61.1)	28(51.9)	10(23.3)	33(64.7)	
Total	54(100.0)	54(100.0)	43(100.0)	51(100.0)	

*by chi-square test

성은 예방 및 교육(76.7%), 진료협조업무(23.3%) 순으로 나타나 남성성은 예방 및 교육업무를 선호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Table 4>.

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취업 고려요인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취업요인 중 희망분야에서 양성성은 2차 의료기관(66.7%), 1차 의료기관(33.3%) 순으로, 남성성은 2차 의료기관(58.1%), 1차 의료기관(41.9%) 순으로, 미분화는 2차 의료기관(55.6%), 1차 의료기관(44.4%) 순으로 나타나 양성성, 남성성, 미분화는 1차 의료기관보다 2차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성은 1차 의료기관(58.8%), 2차 의료기관(41.2%) 순으로 1차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취업요인 중 희망도시에서 여성성은 대도시(64.7%), 중소도시(35.3%) 순으로, 남성성은 대도시(58.1%), 중소도시(41.9%) 순으로, 미분화는 대도시(63.0%), 중소도시(37.0%) 순으로 나타나 여성성, 남성성, 미분화는 중소도시보다 대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양성성은 중소도시(57.4%), 대도시(42.6%) 순으로 나타나 중소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취업요인 중 우선으로 생각하는 고려요인에서 양성성은 적성과 흥미(88.9%), 시간적 금전적 여유(11.1%) 순으로, 여성성은 적성과 흥미(66.7%), 시간적 금전적 여유(33.3%) 순으로, 남성성은 적성과 흥미(62.8%), 시간적 금전적 여유(37.2%) 순으로, 미분화는 적성과 흥미(72.2%), 시간적 금전적 여유(27.8%) 순으로 나타나 모두 시간적, 금전적 여유보다 적성과 흥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5>.

총괄 및 고안

사람은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자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시기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전공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진로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으며 전공 선택에 대

Table 5. Determinants of employment by gender–role identity

(N=202)

		Gender-role identity				p-value*
		Psychological type	Feminity type	Masculinity type	Undifferentiated type	
Medical institution	Primary health care providers	18(33.3)	30(58.8)	18(41.9)	24(44.4)	0.069
	Secondary medical	36(66.7)	21(41.2)	25(58.1)	30(55.6)	
	Total	54(100.0)	54(100.0)	43(100.0)	51(100.0)	
City	Micropolitan	23(42.6)	33(64.7)	25(58.1)	34(63.0)	0.085
	Metropolis	31(57.4)	18(35.3)	18(41.9)	20(37.0)	
	Total	54(100.0)	54(100.0)	43(100.0)	51(100.0)	
Major Consideration	Aptitude and interest	48(88.9)	34(66.7)	27(62.8)	39(72.2)	0.016
	Time and monetary allowance	6(11.1)	17(33.3)	16(37.2)	15(27.8)	
	Total	54(100.0)	54(100.0)	43(100.0)	51(100.0)	

*by chi-square test

한 뚜렷한 자기 주체적 의사 결정 및 확신이 없어 부모님이나 주변지인들의 결정에 암묵적 합의로 전공을 선택하는 일이 많다. 양 등³⁾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1/3만이 전공과 직업흥미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공 선택과 직업 선택이 중요함으로 진로상담에 있어서 진로 발달과 학생개인의 이해도를 적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심리검사, 적성 검사 등 다양한 검사들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자신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이해도 역시 필요하다. 특히나 여성지배적인 학과나 직업군에서는 더욱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성역할정체감(gender-role identity)은 역사적, 문화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어 발달하는 개념으로 자신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인가 혹은 여성인가를 나타내는 성정체감(sex-role identity)과는 다른 개념이다³⁾. 치위생학 전공 분야와 치과위생사라는 직업군은 여성이 지배적이다. 면허등록 남자 치과위생사는 2009년 157명(0.38%)에서 2013년 322명(0.59%)¹⁴⁾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여자 치과위생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남자다운 직업, 여자다운 직업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은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전문직 활동에 제한을 가져왔다⁵⁾. 김 등¹⁶⁾의 연구에서는 개인이나 사회가 남성의 진로 결정과 관련하여 보다 경직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지배적 진로 선택과 관련하여 남성 지배적 진로의 선택에 비해 보다 많은 심리적 갈등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였고, Flores와 O'Brien¹⁷⁾의 연구

에서는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 태도는 낮은 수준의 진로성취를 이루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 진로 상담 시 단순히 진로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성격적인 특성 및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이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조¹⁸⁾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를 성역할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이며 진로 선택에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고, 김과 백¹⁹⁾의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관련한 연구 및 이들을 위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대한 실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공 선택을 앞둔 진로 선택 행동의 하나인 면접을 보기위한 치위생학과 지원생들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선호 업무, 취업 요인 중 우선순위 고려요인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지도와 진로관련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와 진로 선택에 대한 연구대상의 유형별 분포는 양성성(26.7%), 여성성(26.7%), 미분화(25.2%), 남성성(21.3%) 순으로 나타났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성정체감 유형에서의 분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²⁰⁾.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에서 양성성, 여성성, 남성성 유형은 적성, 직업적 안정성, 지인의 추천 순으로 동일했으나 미분화는 적성, 지인의 추천, 직업적인 안정성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이 적성, 지인의

추천, 직업적 안정 순으로 나타난 결과는 전공 선택에 있어서 취직이 잘되어서, 주변의 권유, 적성 순으로 결과가 나온 이²¹⁾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정보에서 양성성, 여성성, 미분화유형은 직접경험보다는 간접경험을 선호하였으나 남성성 유형은 간접경험 보다는 직접경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경험의 예는 책, 방송, 신문, 라디오, 인터넷을 통한 간접적인 매체를 이용한 정보의 습득을 의미하고, 직접 경험의 예로는 치과방문이나 치위생학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남성성 유형이 진로선택의 간접 경험을 통한 정보의 습득보다 직접 경험을 통한 정보의 습득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남성성 유형요인의 독립적, 지배적, 적극적이라는 Bem²²⁾의 요인과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선호업무에서 양성성, 여성성, 미분화유형은 예방 및 교육업무 보다 진료협조업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성은 진료협조업무보다 예방 및 교육업무를 선호하였다. 황²³⁾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20대 치과위생사는 임상을,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예방공중분야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비교하면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20대와 비슷한 대입을 앞둔 학생이라는 점과 진료협조에 관한 임상을 예방보다 선호함은 일치하였으나 아직 전공이해도가 낮아 진료협조업무가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로 학습화된 결과일 수도 있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취업요인 중 우선으로 생각하는 고려요인에서 적성과 흥미, 시간적 금전적 여유 순으로 나타나 양성성, 여성성, 남성성, 미분화 모두 시간적, 금전적 여유보다 적성과 흥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²¹⁾의 연구결과에서는 지위, 경제적 보상과 같은 외재적 가치관이 사회기여, 성취, 능력, 직업흥미 등의 내재적 가치관보다 더 관심이 많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 등의 외재적 가치보다 적성과 흥미 등의 내재적 가치가 더 높게 나타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한 대학의 치위생학과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치위생학분야의 선행연구가 전무하므로 직접적인 비교연구가 미흡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대한 만족이 치과위생사로 취업을 하였을 때 직업만족도로 이어지기 까지 진로상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는 내담자들의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자기이해를 높이고 유형별 진로 지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의의를 둔다. 정 등²⁴⁾의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와 전공만족도와 진로 탐색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다 심층적인 교육 및 진로상담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황 등²⁵⁾의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준비 및 선호도 관련 주요요인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양 등³⁾의

연구에서는 진로 선택이나 진로 계획에 있어서 자기이해능력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역할정체감을 통하여 자기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취업의 선호도 관련 주요요인과 진로계획에 대한 유형별 진로지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수시와 정시모집에 면접을 위해 K대학 치위생학과에 방문한 여학생 202명의 설문자료를 토대로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와 정보, 선호업무,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χ^2 -test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에서 양성성, 여성성, 남성성은 적성, 직업적 안정성, 지인의 추천 순이었으나 미분화는 적성, 지인의 추천, 직업적인 안정성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2.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정보에서 양성성, 여성성, 미분화는 간접경험, 직접경험 순으로 직접경험 보다는 간접경험을 선호하였으나 남성성은 간접경험 보다는 직접경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3.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선호업무에서 양성성, 여성성, 미분화는 모두 진료협조업무를 예방 및 교육업무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성은 진료협조업무보다 예방 및 교육업무를 선호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1$).
4.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취업요인 중 희망분야에서 양성성, 남성성, 미분화는 1차 의료기관보다 2차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성은 2차 의료기관보다 1차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05$).
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취업요인 중 희망도시에서 여성성, 남성성, 미분화는 중소도시보다 대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성성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6.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취업요인 중 우선으로 생각하는 고려요인에서 양성성, 여성성, 남성성, 미분화 모두 시간적, 금전적 여유보다 적성과 흥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이상의 결과를 통해 치위생학 전공과 직업선택에 있어서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공 및 직업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유형별 성역할정체감을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로상담에 활용하고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지속적인 성역할정체감 관련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1. Kim SH. The problems and issues of the teacher aptitude test administered to the applicants fo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college admissions and their solutions. *J Korean Teacher Education* 1988; 15(1): 208-19.
2.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Korea: Ministry of education,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4.
3. Yang MH, Park MG, Kim HJ. The Effects of congruence, score elevation & types of interest o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satisfaction with major. *J Vocational Education* 2010; 29(2): 137-56.
4. Bae SM, Kim HK. A status of determinant of the intention to turnover for dental hygienist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2; 13(12): 5987-91.
5. Lee JY. Sex-role identity, self-esteem, and marriage and career plans of university women in Korea. *J Asian Women* 1983; 22: 87-98.
6. Lee SH, Lee EJ. The influences of gender role identity, and gender role attitud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Korea J Counseling* 2009; 10(4): 2137-51.
7. Lee GH. The effect of the accordance of the gender characteristics and sex-role identity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barriers. *Korean J Counseling and Psychology* 2003; 15(2): 353-66.
8. Jung JS. The Effect of the Person's sex-role identity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patterns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J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2002; 15(1): 135-55.
9. Na TG. The difference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ccording to biological sex and sex-role identity typ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oodservic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2014; 20(3): 50-63.
10. Park EA. Gender role ident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 diversity of its types. *Korea J Adult Nurs* 2011; 23(5): 423-33.
11. Kim MA, Ko, Park EA. Understanding the gender role identity in male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 Soc Nurs Educ* 2014; 20(2): 223-33.
12. Kim YH. Development of Korean sex-role inventory. *J Asia Women* 1988; 27: 153-82.
13. Block JH. Conception of sex-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Association* 1973; 28: 512-26.
14. Ministry of healthcare and welfare statistical yearbook. MOHW. License information system of MOHW. Division of Healthcare Resources Policy; 2014.
15. Park JM, Lee SJ. Comparison of gender stereotype between female nursing students and humanities students. *J Korean Acad Community Nurs* 2009; 20(4): 412-20.
16. Kim JH, Hwang MH, Yoo JY. Gender roles, gender role conflicts, career indecision and vocational identity of Korean male college students in male-dominant majors and in female-dominant majors. *J Youth Counseling* 2004; 12(1): 132-42.
17. Flores LY, O'Brien KM. The career development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women: a tes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 Couns Psychol* 2002; 49: 14-27.
18. Jo KH. Type of attitudes toward a successful life of Korean nursing students: A Q methodological approach. *J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8; 38(1): 111-21.
19. Kim KM, Bak SI. Effects of Holland career group counselling program on the career maturity and decision-making abilities of College Freshmen. *J Korean Employment and Career Association* 2011; 1(2): 19-39.
20. Kim EH, Kim BW. A study on the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ender role identity. *J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10; 29(4): 163-83.
21. Lee SM. Factor analysis in the work values types of freshmen's in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J Dent Hyg Sci* 2004; 4(2): 55-60.
22. Bem SL. The measuring of psychological androgyny. *J Consult Clin Psych* 1974; 47: 155-62.
23. Hwang MY.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field of dental hygienists activities and the curriculum of dental hygiene. *Bulletin of Dongnam Health University* 2001; 19: 233-41.
24. Jung GO, Choi GY, Bae JY.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3; 13(1): 61-8.
25. Hwang JY, Yang SY, Son GY, Won BY, Oh SH. Employment preparation and job preference of dental hygiene majoring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3; 13(4): 677-84. <http://dx.doi.org/10.13065/iksdh.2013.13.4.677>.